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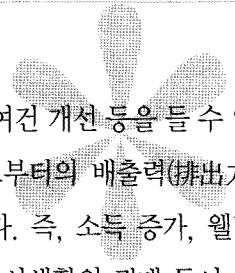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 1990년대부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귀에 익은 구절이다. 농촌을 떠나는 풍조가 만연하던 시대에 정곡을 찌르는 농정공약이었지만, 그야말로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농촌으로 돌아오기는 커녕 이농과 탈농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양상이 달라지는 느낌이다.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귀농 교육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이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총 4067가구에 9732명을 기록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귀농이 점차 늘어나다가 2009년부터는 그 2배 수준으로 뛰어 연간 1만명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귀농 인구가 양적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실직 등의 이유로 고향에 되돌아오는 생계형 귀농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연령도 젊어지고 농업경영을 사업으로 시작하는 창업형 귀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야심찬 인재들이 늘어나면서 조만간에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재가 모이기 시작

최근의 귀농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 2004년 1302가구, 2008년 2218가구, 2009년 4080가구, 2010년 4067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2010년이 2009년보다 다소 줄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0년 귀농자 가운데 50대 이하 가구가 전체의 81%에 달하고, 전원생활을 찾으려는 귀촌보다는 생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귀농이 89%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20~30대 귀농자들은 농과계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며, 40~50대 귀농자들은 타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농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는 농업경영인들이다. 아직 수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인력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북이 111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768가구), 전북(611가구), 경남(535가구)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4개 도가 전체 귀농의 74%를 차지했다. 귀농 후의 영농 분야는 경종농업이 47.2%로 가장 많았고 과수 17.8%, 시설원에 10.9%, 축산 7.7%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귀농 전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 33.1%, 사무직 19.0%, 생산직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자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경종농업에 우선 진출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귀농의 유형에는 농촌 출신의 귀농(U-턴), 농촌 출신이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귀농(J-턴),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도시 출신의 귀농(I-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도시 출신의 귀농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농업·농촌의 내부적인 요인, 즉 흡인력(吸引力)이라고 할 수 있는 영농기술의 보편화, 평생직장으로서 농

업의 매력,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보다는 도시로부터의 배출력(排出力)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 증가, 웰빙 추구, 평균수명 확대, 도시생활의 권태 등이 귀농·귀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민들이 영농 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도농교류 사업은 귀농·귀촌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농어촌 체험마을이나 1사1촌운동 등으로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77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민들이 문화나 예술 분야의 재능 기부 등으로 농촌 생활을 풍요롭게 하려는 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이렇게 농업·농촌과의 만남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귀농·귀촌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요즘은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전원생활을 찾는 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로 총 712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2010~2018년 동안에 약 311만명이 직장 생활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일수록 귀농·귀촌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와 정주 수요도 계속 증가 전망

돌이켜 보면 1967년부터 이농과 탈농이 계속되어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였는데, 최근의 귀농 열기로 농업인구 감소가 둔화되는 듯하다.

**미래의 농촌은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한편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농가 인구의 전년대비(5년전) 감소율은 1995년 -27.2%, 2000년 -16.9%, 2005년 -14.8%, 2010년 -10.7% 등으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통계를 분석하면 상세히 나타나겠지만, 자연환경과 경관이 수려하고 생활 환경이 정비된 농촌 마을에는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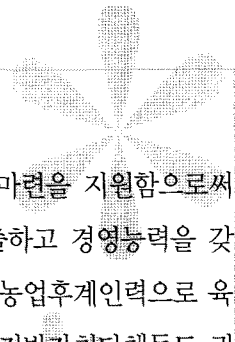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에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이주 희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56.3%가 농촌 이주를 희망하였으며, 더욱이 28.1%는 10년 내에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중이라는 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이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 생태, 전통문화, 농촌사회 등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의 경제적인 풍요와 편리성보다는 농촌의 어메니티가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잠재적 수요가 현실화 되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인구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홍보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대비 농촌 거주 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의 귀농·귀촌은 도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 많은 경우 도시적 문화나 경쟁적 사회에 대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변화는 현대 사회의 메가트렌드로서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적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서 귀농·귀촌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은퇴한 연령층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의 가치를 찾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도시로부터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이며, 단지 노동력 보충이 아니라 농업을 사업으로 시도하려는 인재들이 속속 농촌 지역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인력과 인



재들이 점점 축적되어 미래 농촌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한편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귀농인들과 함께 공존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필자는 작년부턴 간간히 귀농교육에 강사로 초대받아 귀농 희망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계층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저녁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의 열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들은 귀농 교육에 참가한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주위 사람들도 이들이 머지 않아 농촌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난 귀농 예정자는 이제 농사도 해 볼만한 직업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오늘날의 농업은 맨주먹의 주먹구구식 옛날 농사가 아니다.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업두도 못내고 컴퓨터로 전자상거래를 해야 하는 시대이니, 귀농한다는 것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창업이라고 할만하다. 회사 경영에서 은퇴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는 귀농인들은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들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 인력을 농업후계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귀농·귀촌 유치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장 알선과 영농기술 상담 등의 창업지원을 비롯하여 주택 자금 용자나 수리비 보조 등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귀농인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기존 농업인들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도우면서 마을 공동체에 어울리도록 배려하는 공존공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귀농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입생처럼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는 귀농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기회의 확충은 물론 정책자금 융자지원 등을 강화하여 귀농인들이 영농창업하는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귀농인들이 건설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의 귀농인들은 '이농 시대의 종결자'가 될 것이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귀농·귀촌의 도도한 흐름이 미래 농업을 인재가 모이는 산업으로, 농촌을 활력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기를 기대한다. ㉞